

본문 : 요한복음 11:25-27 / 누가복음 16 장 19-31 절

제목 : 부활을 살아내기

1.

요즘 한국이나 미국 사회를 보며 느끼는 것은 '남성성의 엔트로피가 우리 사회를 망가뜨려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남성성이란 타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힘의 논리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힘의 논리, 지배의 논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성성의 엔트로피를 cool down 시키고 보듬어 안는 여성성에 구원의 원리가 있다고 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마초적인 힘을 과시함으로 상대를 억누르려는 리더십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리더십의 형태도 바로 이런 남성적이고 제국적인 리더십 스타일이었습니다. 힘으로 로마를 제압하여 자신의 민족을 해방할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를 당시 유대인들은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 그런 길과는 정 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각 지고 모나고 울분으로 가득차서 내관을 건드리면 곧 터질 것만 같은 사람들을 품어 안으셔서 cool down 시키는 방식으로 그분의 구원을 이뤄나가길 원하셨죠. 고슴도치를 껴 안으면 껴 안는 사람은 상처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날카로운 상처들을 품어 안음으로 자기는 피를 철철 흘릴지라도 그 모난 인생들을 구원하길 바라셨지요. 예수님은 죽음의 그늘에 고통스러워 하는 인생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 주길 바라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부활의 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 삼일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가 되심이 한 연약한 여성의 입을 통해 고백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27 절의 마르다의 고백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이 아닌가요? 마르다의 신앙고백은 마태복음 16 장 16 절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당시 여성은 법정에서 증인의 효력이 없을 정도로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한 여성의 입을 통해 베드로에 맞먹는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 역사가 여성들에 의해 주도 되었다면 마르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리라 상상해 봅니다. 카톨릭의 교황도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되었을 것이구요.

개신교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도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이 되어야 교회가 더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오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포인트는 마르다의 고백을 우리는 무심코 지나치지만, 그녀의 신앙고백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선포하시면서 뒤이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모두에게 부활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이라는 뜻 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뜻이 담겨 있으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부활을 믿는다면 살아서부터 그 부활을 믿는 삶을 살으라는 뜻으로 이해 됩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 부활을 현재 내 삶에 살아내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눔으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2. 첫번째 이야기

누가복음 16 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이지 실재로 일어났던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익명의 부자이지요.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옷은 정체성이죠. 그 당시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귀족과 왕족의 색깔이 자색이었습니다. 고운 베옷 또한 명품임을 말해 줍니다. 요즘으로 치면 샤넬, 에르메스, 디올 등의 명품으로 치장했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이 비유의 또 다른 주인공이 소개되는데 그는 부자와는 매우 대조적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름이 소개되는 비유는 이 비유가 유일합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공교롭게 요한복음 11 장의 주인공인 나사로와 이름이 같은 거지입니다. 요한복음의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와 본문이 ‘죽은 자의 삶과 부활’이라는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입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헬라식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거지 나사르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없지만, 그의 이름을 통해 누가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를 입증해 주는 것이 그가 죽자마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그의

삶이 인정을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이었겠죠. 어쨌든 거지 나사로의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비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레 미제라블'의 모습입니다. 부자집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였고,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가 부자집 대문 앞에 구걸했던 이유는 부자집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였습니다. 원래는 개가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의 삶이 개같은 삶이었다는 거죠. 실은 개만도 못한 삶이었습니다. 이미 주인의 밥상에서 부스러기를 얻어 먹은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염증 부위를 핥아 먹고 있잖습니까. 자 여기까지의 묘사들을 보니 어떤 느낌입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이 매우 대조적이죠. 한 가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부자가 그렇게 화려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돌아볼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모티브는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 저 세상에서의 삶의 대조입니다. 대조 보다는 역전이란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거지 나사로가 아닙니다. 이름 없는 부자지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둘의 죽음 이후에 펼쳐집니다. 아마도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쓸쓸히 죽어갔을 것이고, 그의 시체는 방치되다 버려졌을 겁니다. 반대로 부자는 좋은 곳에 묻혔겠지요. 부자든 거지든 죽는 것은 공평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엄청난 역전이 일어납니다.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반면 부자는 하데스라 불리는 저 지하의 죽은 자들의 공간에 갇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부자는 고통 중에 천국에서 행복해 보이는 익숙한 얼굴을 봅니다. 어디서 봤더라 했을 겁니다. 25 절의 아브라함의 말은 이 두 사람의 삶과 죽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네가 살아 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평가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형편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아직 살아 있는 다섯 명의 형제들을 구제해 볼 생각으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누구든 보내서 자기처럼 살고 있을 형제들에게 좀 경고해 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클리어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어떻게 살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너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 말해주죠. 그러니까 너도 성경대로 살았다면 거기 있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율법을 현재 내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실천이 곧 내세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죽은 후에 주님의 품에 안겨 참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과 반대로 큰 고통의 구렁텅이로 떨어질지 현재의 삶이 결정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은 현재의 삶이 결정한다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3. 두번째 이야기

오늘의 두번째 이야기는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입니다. 톨스토이는 2 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10 살 전에 돌아가십니다. 그의 형도 이른 나이에 숨을 거둡니다.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도 그보다 이른 나이에 죽은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생애에 있어 죽음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안나 까네리나>,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을 젊은 나이에 쓴 이후 그는 유명한 작가로 인정 받았습니다. 부활은 그가 70 세 이후에 인생의 말년에 쓴 작품입니다. 그는 자기 삶을 괴롭혔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 작품에 담고 싶었습니다.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이고 죽음 이후에도 인정 받을 수 있는 삶인지를 부활이라는 제목을 통해 묘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이미 회심을 경험한 작가였습니다. 앞의 굵직한 소설들을 쓴 이후 <바보 이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같은 기독교 정신이 담은 작품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벌어들이는 인세를 자신이 하나도 갖지 않고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는 결정을 했죠. 그런 삶을 살아오던 그가 말년에 쓴 부활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플류도프라는 공작은 매우 부자입니다. 삐떼르부르크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자집에서 자란 남자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 이모의 집을 방문하여 이모의 집에서 살고 있던 까츄사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죠. 까츄사는 농노의 사생아로 이모 집에 시녀이지만 양녀로서 귀하게 자라고 있는 앳된 소녀였죠. 네플류도프는 어린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아기가 생기자 100 루블의 위로금을 주고 떠나버립니다. 몇년의 시간이 지나고 네플류도프는 배심원으로 한 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매춘부가 돈만은 사업가를 죽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었죠. 네플류도프는 피의자로 재판정에 앉아 있는 여인이 자신이 못된 짓을 한 까츄사라는 것을 알지만 까츄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네플류도프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때부터 까츄사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을 돕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 까츄사는 시베리아 유형 판결을 받고 그곳으로 보내지게 되죠. 네플류도프는 자신의 잘못으로 그녀의 삶이 망가져서 결국 매춘부가 되었고 살인범으로 몰리게 된 것에 깊은 반성과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을 결심하죠. 하지만 까츄사는 그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범죄자로 시베리아 유형길에 오른 시문손을 사랑하고 그와 결혼하기로 결정해 버리죠. 네플류도프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자신의 영지를 모두 농노들에게 나눠주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네플류도프는 성경의 복음서를 읽으며 사랑과 평화만이 러시아의 암울한 현실을 치료할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소설은 마무리 됩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변호사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회개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삶이라는 것을 작가는 강조합니다. 톨스토이 자신도 자신의 인재를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눴고 그런 정신을 실천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회개에서 멈추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나누는 삶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증명해 보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과 평화의 길을 따르는 길이 이 세상을 치유하는 길임을 믿고 따라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4. 세번째 이야기

여러분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그리고 톨스토이의 부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부활을 살아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죽음 이후에 믿음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을 증명해 내야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작가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한 편의 네러티브가 되어 기록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의 세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들입니다. 교회가 교회 문 앞의 레 미제라블들을 외면한 채, 우리 끼리 잘 먹고 잘살았다는 이야기로 만족한다면 뭔가 부족합니다.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명령과 가치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Mishpat 와 Tzedakah 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실천 이것이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에서 그렇게도 강조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가치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만들어질 나라에게 바라셨던 두 가지 가치,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창세기 18 장 19 절에 명확하게 그 비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옳고 바른 일로 번역된 것이 바로 미쉬파트와 쯔다카, 즉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선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삶이지요.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며, 그들에게 부활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실천을 해보려 합니다. Jeremiah Program 이라는 미혼모를 돕는 기관에 교회가 매년 1200 불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매주 화요일에 있는 Cook for the Kids 라는 액티비에 동참하려 합니다. 아이들과 미혼모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끼 대접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에 우리 가진 재정을 조금 나누고, 우리 시간을 나누고, 봉사를 통해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 먹여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 봉사를 위한 목적헌금을 걷고 있으니 동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몸으로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불고기를 만들고, 냉동음식을 데우고, 음식을 세팅하고 나눠주는 일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동안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정기적으로 일년에 두 번 그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준다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외에도 더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쓰여져 나가길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삶이 복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처럼 부활을 살아내고, 부활을 증명해내는 다하나교회 교우들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저 지옥에서 죽은 자를 보내서라도 깨닫기 원했던 한 부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집 문 앞, 우리 동네, 우리 타운의 힘 없는 자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